

특별기획

이승복 김제부시장, 시설재점검

이승복 김제 부시장은 휴일인 지난 9일 여름철 태풍에 대비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금산3지구, 금산리 물놀이 시설, 쌍용리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금산면 수방자재를 점검하고 "올해 여름철 기상전망은 태풍이 1~2개 정도가 우리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해취약시설,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에 사전대비와 예찰을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지시하였다.

또한 "시작된 폭염에도 대비하여 관내 261개소 무더위 쉼터의 냉방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민들 사용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전에 기하라"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주산면, 면민 200명 대상 '더드림 힐링 아카데미' 개최

부안군 주산면이 11일 면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16 더 드림 힐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힐링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강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행복드림연구원 박상화 원장이 '힐링 행복 에너지 광 광광'을 주제로 위로만 듣는 교육이 아닌 다양한 구성과 참여자의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평소 전문강사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주민들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몸과 마음에 힐링이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초대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교월동 주민자치회 월례회의

김제시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종욱)는 11일 주민센터에서 자치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첫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래교실과 수지초교실 등 2016년 상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바탕으로 하반기 보다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밀착형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위원들간의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관내 향교에서 교월동 주민센터까지 조성된 '366 태극기 거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나라사랑, 김제사랑』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하반기 주민자치 특색사업으로 『입석전승관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4년 연속 대표축제로 지정된 김제지평선축제기간 김제시를 방문하는 많은 이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월동의 이미지를 알리기로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미혼남녀 만남의 장 가져

정읍시가 지난 8일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만혼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정읍인구 15만 회복을 위해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정읍시청을 비롯하여 경찰서, 국유림관리소, 소방서, 교도소, 전자시설단 등 8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미혼남녀 18쌍이 참여해 폭 넓은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

1박 2일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커플이 맺어지도록 지원한 결과 최종 6쌍의 커플이 탄생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번 발대식은 서포터즈 대표의 선서문 낭독, 위촉장 수여 및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제시와 김제지평선축제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하여 서포터즈 회원 상호간 정보 교류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화합의 시간이 이어졌다.

지평선축제 SNS 서포터즈 출동

'지평이' 발대식...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등에서 홍보 봉사

김제시(시장 이건설)는 대한민국 4년 연속 대표축제인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 온라인 홍보의 참병 역할을 수행할 SNS 서포터즈 '지평이' 발대식을 지난 9일 김제시청 2층 상환실에서 개최했다.

김제지평선축제 SNS 서포터즈 '지평이' (이하 '지평이')는 지난 5월 24일부터 3주간 김제지평선축제와 SNS에 관심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평선축제 홈페이지 (<http://festival.gimje.go.kr>) 및 블로그 (<http://blog.naver.com/gimjehorizon>)에 공고하여

총 21명을 선정하였으며, '지평이'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축제 종료 후 자원봉사증서를 지급한다.

이번 '지평이' 발대식은 서포터즈 대표의 선서문 낭독, 위촉장 수여 및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제시와 김제지평선축제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하여 서포터즈 회원 상호간 정보 교류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화합의 시간이 이어졌다.

SNS 서포터즈 '지평이'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축제기간까지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소개, 별거리 및 일

정별 행사 안내 등 수시로 업로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행사장을 찾을 수 있도록 국내·외 SNS 이용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승복 부시장은 "이번 SNS 서포터즈 '지평이' 발대식 개최를 통해 축제 온라인 홍보의 참병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한민국 최초 4년 연속 대표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를 넘어 세계인들에게 친근히 다가갈 수 있도록 성장 발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저출산 극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인구의 날 기념식서 출산장려 제도 운영 등 공로 인정

정읍시가 11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제5회 인구의 날 (매년 7월 11일)기념식에서 저출산 극복 정책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인구정책 추진 활성화와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 제도운영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지역사회 결혼·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인구정책 연구, 인

구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 심사평가에서 이 같은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비롯 직장 어린이집 운영과 남성 육아 휴직 참여를 적극 활성화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 임신과 출산·양육지원에 대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인 출산 분위기 조성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이와 함께 부모교육과 가족캠프,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왔다.

김생기 시장은 "이후에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최선의 조건을 갖춘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추진과 함께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읍인구 15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축복의 땅 부안에서 오복을 누리도록”

“산·들·바다와 노을이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경관, 많은 문화유산이 위치해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땅 부안에서 근무하게 돼 영광이라며 두려움이 앞선다”고 권재민 신임 부안부군수(사진)가 11일 취임식에서 밝혔다.

특히 권 부군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통·공감·동행 행정을 펼쳐 군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각오를 피력했다.

이어 권 부군수는 “서로 화합·배려하는 조직일체감 형성을 통해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실현

권재민 부안부군수 취임

에 최선을 다하자”며 “부안군이 정명 600주년을 넘어 새로운 미래 천년의 비상을 준비하면서 비전으로 제시한 ‘부래 만복(扶來萬福·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다)’ 실현에도 최 앞장에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인접인 정읍 영원 면 출신인 권 부군수는 부안 백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1979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임문했으며 전주시 기획조정국·중화산동장 및 전북도 건설물류국·건설교통국·환경복지국·

도민안전실·감사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1월 서기관 승진 후 전북도 도민안전실 사회재난과장으로 근무했으며 11일자로 부안부군수에 임명됐다.

2010년 국가사회발전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2013년 연말 우수공무원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보건소, 경로당 구강보건사업 실시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토대로 구강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의 구강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로당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관내 450개소 그룹홈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실시한 이번 구강보건사업

은 전문가 칫솔질 교육을 통하여 치주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불소바니쉬 도포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치근면 우식예방 및 시린이 방지 등 노년기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또한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한 틀니 소독 및 틀니관리요령, 구강건강증진 방

지를 위한 입체조를 실시하는 등 노년기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관리법을 몰라 불편을 겪어 왔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 할수 있게 됐으며 즐겁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하며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15일 개장

김제시는 오는 15일 김제시 문화·체육의 메카인 시민문화체육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분수대 옆에 시설된 어린이 물놀이장은 이날 개장식을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안전 등의 이유로 우천 시에는 휴무할 계획이다. 물놀이장은 유아(보호자 동반)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무료이다.

시설은 조형물, 워터드롬, 워터바스켓, 워터터널, 벽천 등 물놀이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그늘막 등을 설치해 이용

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어린이 물놀이장은 금년 6월말 준공하였으며 시내권에 위치해 김제시 어린이들은 물론 도내 어린이들에게도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시 이건설 시장은 “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으로 인해 수년 동안 제기된 도시공원의 어린이 친수공간 조성의 숙원 사업이 해결되었으며, 김제에 최초로 설치된 무료이용 가능한 어린이들의 여름휴식 공간인 만큼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 가기 등을 실천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번 행사에는 김생기 정읍시장을 비롯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읍시-전북과학대 농촌재능나눔봉사

정읍시와 전북과학대학교는 11일 '1% 재능 나눔으로, 101%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농촌재능나눔축제를 가졌다.

정읍북부노인복지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생기 시장과 황인창 전북과학대학교 총장, 유진섭 정읍시의회의장을 비롯 전북과학대학교 7개 학과 재학생 및 교직원봉사대, 정읍시 마을공동체 4개 팀 등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과학대학교 치위생과 등 7개 학과 재학생들과 정읍시 마을공동체 4개 팀은 이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과 함께 시력검사, 뇌졸중 관리교육 등을 통해 건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자국의 전통의상을 착용하고 전통음식을

선보여 평소 타국의 음식문화에 생소한 지역주민들의 발길을 불러 모았다. 또 이·미용 봉사, 예술치료 공연 및 전통놀이와 차, 타로 체험 등의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생기 시장은 “농촌 재능나눔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웃음과 희망이 되고,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등 나눔 문화 실천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와 전북과학대는 지난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선정에 따라 올해로 3회째 농촌재능나눔 축제를 가졌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농기센터는 지역농업의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단계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읍농기센터 10월까지 강소농 후속교육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강소농(強小農)을 지역농업의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단계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과 4월 강소농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마친데 이어 5월부터 후속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0월까지 진행되며 집합 7회와 현장 1회, 성과 보고회 등 모두 9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7월(3회차) 후속교육이 지난 7일 제2청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읍 강소농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술센터는 “올해 후속교육은 주경이득으로, 낮에는 일을 하고 야간은 이용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강소농 후속교육은 농가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자신의 농업경영현황을 살펴 문제점을 찾아낸 후 경영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사항을 점검, 개선사항에 관한 컨설팅을 받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에 참가한 한 교육생은 “도출된 문제점을 한 번에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강소농 실천항목인 비(비영점), 품(품질향상), 고(고격확대), 가(가치증진), 역(역량개발) 중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농장경영에 변화를 시도해 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후속교육을 추진하면서 농가 스스로 작성한 실행보고서의 실천사항 점검과 강소농 현지 포상, 타 지역 우수 강소농 벤치마크 등 현장 컨설팅을 통해 우수한 강소농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며 “핵심 농장별 전문가 진단을 통한 경영분석과 사업계획에 따른 전략을 설계하는 정밀컨설팅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